

광주 백운고가차도 31년만에 역사 속으로

철거 공사 위해 오늘부터 통행 제한 지하철 공사와 맞물려 교통 체증 불가피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광주 백운고가차도 철거공사를 위해 4일 0시부터 통행이 제한된다.

공사 기간 주변 도로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운행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시는 4일 오후 기념식과 함께 백운고가차도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1989년 11월 준공된 백운고가 길은 길이 386m, 폭 15.5m, 왕복 4차로로 지난해 기준 하루 교통량은 5만3000대 가량이다.

이 일대 백운광장 교차로 통행량은 하루 14만7000대에 달해 공사가 시작되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맞물려 일대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운광장의 공사는 1단계 고가철거와 2단계 도시철도 및 지하차도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백운광장 일대 공사를 진행할 때 차량 접근이 가장 많은 단계는 고가철거 단계이고, 이후 단계는 복공을 시행한 뒤 공사가 진행될 때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남광주~백운광장 구간의 경우 출근 시간대인 오전 8~9시 평균 시속이 18.6km였지만,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12km, 최저 8km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평균 8km에 그쳤던 대성초교 부근은 4km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11월까지 고가 구조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도시철도와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교통 혼잡에 대비해 남구에서 남광주 방향, 남광주에서 백운광장 방향, 백운광장에서 동아병원 방면 차로를 추가했다. 교차로 1곳에서는 좌회전을 금지하고 백운광장 주변 5곳에서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등 신호체계를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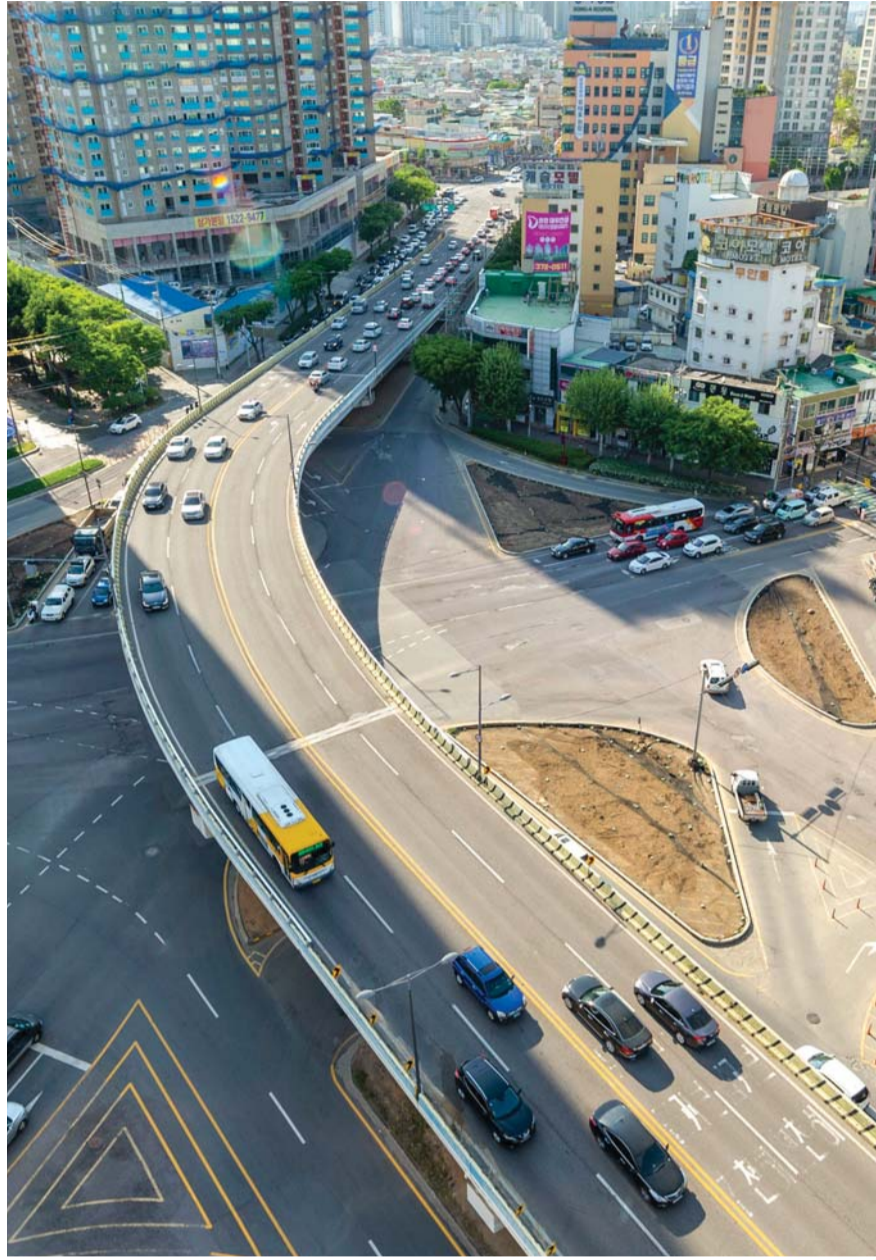
광주시는 매월 06번, 수안 12번 등 2개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바꾸고 우회도로로 이동을 유도하려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백운광장 대신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무산됐다.

광주 남구청은 백운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 주요 거점지역 6곳에 교통안내 공무원 30명을 배치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우회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시스템을 활용해 백운고가 주변 우회를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백운고가 철거로 인한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철거 기념식은 '아듀, 백운고가! 새로운 길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테이프 컷팅, 마지막 걷기, 희망의 메시지 남기기 등의 행사를 통해 백운 고가를 추억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남구 백운고가차도 철거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차량들이 백운고가차도를 통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출연금 뚝수’ 김창준 체육회장 본회의 출석하라”

김학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사무처에 출석 절차 진행 요구

광주시체육회가 '회장 출연금 축소'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김학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이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사무처를 통해 오는 15일 본회의에 김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 회장이 취임 이후 내기로 했던 출연금을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고, 사용 목적도 지역체육발전금이 아닌 자신의 활동비로 규정을 고친 데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6개월 전 시체육회장 출마 당시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 6억원의 체육발전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출연금 기탁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슬그머니 규정을 개정해 2억원으로 축소하고 사용처도 회장 업무추진비로 제한했다.

시 체육회는 출연금 6억원 조항이 타 시

도에 없는 데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체육회에 출마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체육회 안팎에서는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차기 회장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김 회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셀프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례는 의회 출석 대상자를 시장과 교육감,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의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시로부터 민간단체 운영보조금과 체육시설 위탁비용 등의 명목으로 매년 245억원을 지원받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시체육회장의 출연금 축소는 뚝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민선 첫 시체육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이 취임 후 제약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반대 대기업 노조 부끄러운 줄 알라”

한국노총 광주본부 비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는 다른 대기업 노조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비판했다.

한노총은 3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낮은 임금과 노동 통제를 통한 저숙련 일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이 포화 상태라거나 중복 차종, 품성 효과 문제 등을 말하지만 역외로 지어낸 공색한 논리”라며 “산업이 포화상태인데 대기업 노조는 왜 사업주에게 투자를 더 하라고 하고, 특근과 생산, 인력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노동적이고 반연대적인 기득권 지키기는 포기돼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때리기는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착취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끄러운 행동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언제든 만나 대화와 연대를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하지만 대기업 노조가 노사 간 담판을 통해 우리를 매도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노후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전남도는 3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노후 자동차에 대한 올 상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항목은 매연을 비롯 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 과잉을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 차고지

와 주요 산·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비디오키메라와 측정기로 단속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단속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어린이집에 긴급운영비 지원

1089곳 전체에 50만~100만원

전남도가 이달 중 도내 어린이집 1089곳 전체에 각각 50만~100만원의 긴급 운영비를 지원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무안군 친환경녹색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도내 1089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동들의 어린이집 등록 지연과 가정양육 전환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중되고 여름철 냉방비와 방역물품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들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지사는 그라면서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급식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자금이 지원될 것”이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억2400만원 수준으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유아를 돌보는 돌봄 교사와 운영난에 시름하는 원장들을 격려하려고 보육현장 방문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월 1차 휴원에 이어 5월 말까지 모두 4차에 걸쳐 휴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TV홈쇼핑 사회적 기여 방송' 전남 22개 업체 선정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판매 확대

전남도는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T-커머스협회가 주관한 “TV홈쇼핑 사회적 기여 방송”에 전남 22개 업체가 선정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TV홈쇼핑 사회적 기여 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농수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홈쇼핑 업계와 지자체가 협력해 농수산물 판매방송으로 진행된다.

참여 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12개사로 농수축산물 판매수요를 무료로 하거나 지난해 보다 5~27%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여수 돌산갯영농조합법인의 갯감치, 거문도해풍축영농조

합법인의 썩개떡, (주)쿠키아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과자, 해조영양조합법인의 키조개 관자, (주)강순의 명가의 김치가 포함됐다. 또 나주 (주)가보팍스의 도라지배즙, 담양 (주)고려전통식품의 기순도 명인의 식혜, (주)잠사랑에프앤비의 잠기름·들기름을 비롯 담양축산영농조합법인의 죽순·떡갈비, 농협경제지주(주)해남군연합사업단의 햇마늘, 강진 농업회사법인(주)정심푸드의 고구마말랭이, 완도전북(주)의 활전복, 신안건강영양조합법인의 민어 등이다.

6월중 우선 방송하고, 추가로 10월에도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과 별도로 TV홈쇼핑 방송판매 확대를 위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